

오늘의 계시관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미나=오전 10시 5-18 기념문화센터, 박동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홍보팀장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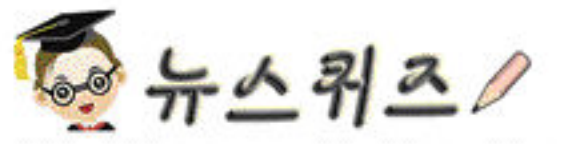
제 19회 광주 벨칸토아카데미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제 4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오전 10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무안군 송담문화예술회관, 장흥군 공설운동장 등.
▲흙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오전 10시 전남 농업지역본부 대강당.
▲저소득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오전 11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장흥군 지체·정신장애인 3쌍 결혼식.

해 각각 주제 발표.
▲제 79회 순천사랑 아카데미=오후 2시 순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신달자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
▲남도인문지리 네트워크 및 문화컨텐츠개발을 위한 워크숍=오후 2시 30분 광주영상예술센터 스튜디오. 박선홍 전 조선대 이사장(나의 '광주학' 여정 회고), 나경수 전남대 교수(남도문화의 세계 브랜드화 전략), 김경수 향토문화진흥원장(문화중심도시와 남도 인문지리), 이경영 목포대 교수(민속문화 기반에 문화컨텐츠 창작사례) 등이 발제.
▲제 510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의로운 땅, 전남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주

제로 강연.
▲제 19회 광주 벨칸토아카데미 정기연주회=8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이현정 귀국 독창회=9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2006 오페라 나비부인=8~10일 오후 7시 순천문화예회관 대극장.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전·남·제주 영상동호회 제 1회 회원사진전=11일까지 KT광주정보통신센터 1층 갤러리.
▲육군 진중 창작품 광주전남 전시회=12일까지 시청 시민전시실.
▲김혜숙 개인전=8일까지 무등갤러리.
▲판화그룹 ALL 초대전=8일까지 지산갤러리.
▲나루회전 '부스전'=8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삼색삼인전=11일까지 나인갤러리.
▲몽툼 기획전 '리설당의 혼기전'=10일까지 자미갤러리.
▲오상문 도자전=13일까지 무등예술관 본관.
▲고광인 개인전=17일까지 일국갤러리.



37.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소속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와 오는 2010년까지 4년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 입단한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를 계약의 잣대로 삼았거나 타이론 우즈(주니치 드래곤즈·연봉 5억 엔)를 넘어서는 대우를 해줬다는 말도 있어 4년간 최대 30억엔 인퓌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년 타자로 올 시즌 41홈런, 108타점을 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승엽 ② 이종범 ③ 최희섭 ④ 구대성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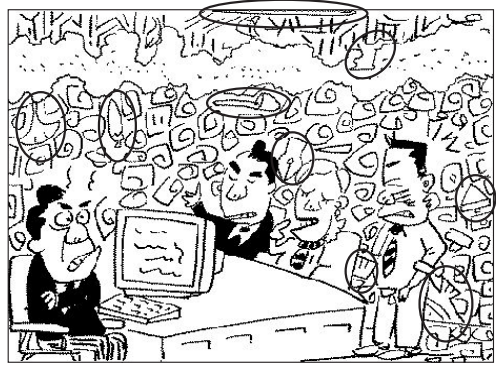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정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46 >



▲지나주 정답

팬이, 고추, 열대어, 펜촉, 서클룩, 슬리퍼, 한국지도, 은행잎, 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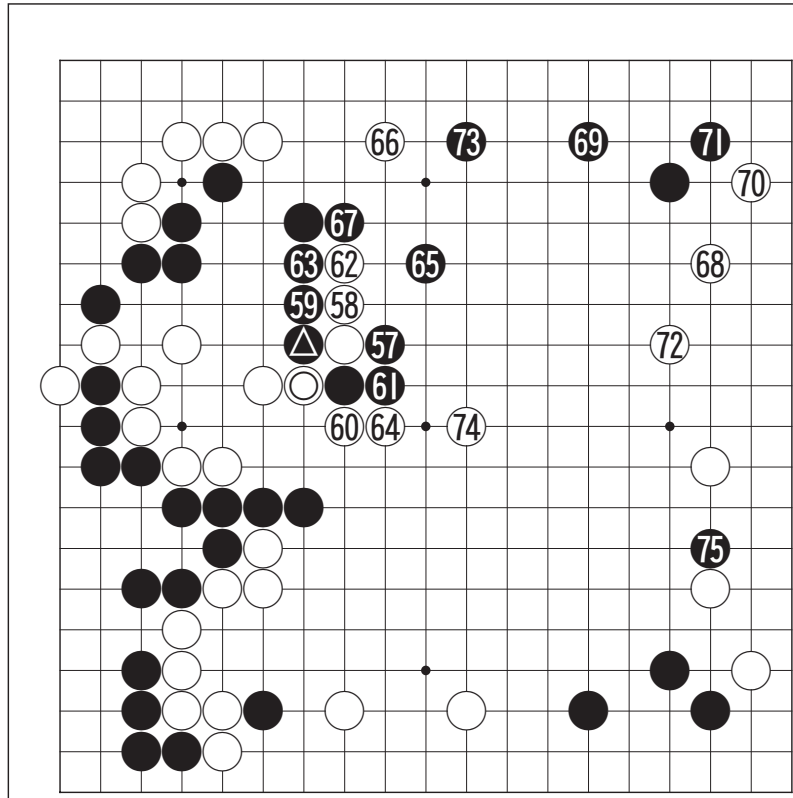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바늘, 열대어, 대리미, 새집, 펜촉, 목, 송사리, 성냥개비, 서클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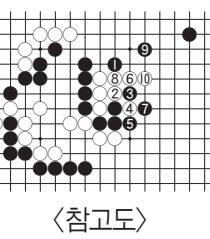
◀김씨

회사에 한 남자가 새로 입사했다. 사장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 남자를 불렀다.
"이름이 뭐죠?"
"김씨예요."
"이것 보세요, 여긴 막노동판이 아니고 회사예요. 나는 김씨, 이제, 박씨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정말 싫어한단 말이요.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하면 당장 그만두게 할거요. 이름이 뭔지 다시 말해보요."
"김꽃사방별사랑이요."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사장이 말했다.
"좋아요, 김씨, 집은 어디죠?"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조정자·광주시 북구 임동 장희진·광주시 서구 화정동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지역비대위



<참고도>

무거운 수, 흑 65 4보(57~75)

白 유병수 5단 <포스크> 흑 박명수 5단 <능합>

흑 65와 백 60으로 맞붙어 힘을 겨루고 있는 장면이다. 흑 57 쪽에서 단수치고 59로 막아야 할 것이 백 돌을 무겁게 만드는 행마의 요령이다. 유 5단도 일단은 62로 키워 한수로 잡히는 것을 방지한 다음 64로 급한 곳을 밀어 간다. 이제 공은 박 5단에 넘어 왔다. 백 석점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관건인데, 박 5단은 여유있게 65로 공격해 간다. 그런데 백이 66으로 버리기 작전을 택하자 무거운 수가 되버린다. 그렇다면 65는 어떻게 두어야 했을까. 여유를 주지않고 <참고도>의 흑 1로 바둑 조여갔어야 했다. 백이 2이하로 달아난다면 11까지 공격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형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박 5단 75로 승부수를 던져 가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바둑소식

이영구, 원익배 2회전 진출

이영구 6단이 서봉수 9단을 꺾고 제2기 원익배 삼단전 본선 2회전에 진출했다. 이 6단은 지난 6일 열린 서 9단과의 대국에서 27수 만에 흑 3집반승을 거뒀다. 이에 앞서 박승현 5단과 박병규 5단과의 대국에서는 박승현 5단이 승리하면서 2회전을 예약했다. 이 6단은 안조영 9단 대 윤현석 8단의 승자와, 박승현 5단은 박정상 9단 대 박승화 초단의 승자와 2회전을 갖는다. 지난 대회 우승자 이창호 9단과 준우승자 박영훈 9단은 시드를 부여 받아 본선 5회전부터 출전한다. 총 상금은 2억 8천만원이며, 우승상은 3천 5백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71> 오하이오 니혼고 <771> 니하오 퉁구워 <489> 한자 이야기 <389>

Try not to do such a thing again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A: I don't understand myself why I did that for her.
B: You tried to be nice to her.
A: But it was against my better judgment.
B: Then, try not to do such a thing again.
A: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녀를 위하여 그런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B: 그녀에게 잘 대해주려 했겠지요.
A: 하지만 그런 제 본의는 아니었어요.
B: 그러란,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understand oneself : 남득이 가다
be nice to ~ : ~에게 잘 대해주다
- Try to be nice to my father when he visits (아버님께서 오실 때 잘 모셔라구)
be against ~ : ~과는 반대이다
try not to ~ : ~하지 않도록 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柚子(ゆず)の香(かお)りっていいわね '유자'향기는 좋아요
A: '柚子(ゆず)の香(かお)りっていいわね.
B: 冬至(とうじ)には, '柚子湯(ゆずゆ)'に入(はい)るでしょう?
A: ええ, そうね. 柚子のお風呂(ゆずのお風呂)って, 體(からだ)は, あたたまるし, 肌(はだ)はつるつるになるし, いいだつて.
B: 美容(びよう)と健康(けんこう)にいいってことね.
A: '유자'향기는 좋아요.
B: 동지에는 '유자탕'에 들어가죠?
A: 예, 그래요. 유자목욕은 몸은 훈훈해지고, 피부는 매끈매끈해지고, 좋다는군요.
B: 미용과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로군요.
柚子(ゆず): 유자
香(かお)り: 향기
柚子湯(ゆずゆ): 유목에 유자를 띄운것
あたたまる: 따뜻해지다
つるつるになる: 매끈매끈해지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靈劬丸 (품질, 능력 등이) 좋지 않다
A: 这款产品(本产品)质量(质量)真(真)差(差)劲(劲)丸(丸).
B: 怎么会(怎么会)这么(这么)差劲(差劲)?
A: 我用(我用)过(过)两次(两次), 就(就)破(破)了(了).
B: 你(你)去(去)找(找)医生(医生)配(配)吧(吧).
A: 那(那)个(个)医生(医生)给(给)我(我)开(开)了(了)个(个)方(方), 我(我)吃(吃)了(了)那(那)个(个)药(药), 没(没)见(见)到(到)好(好)转(转).
A: 你(你)再(再)吃(吃)几(几)天(天), 就(就)会(会)好(好)了(了).
A: 对(对)了, 你(你)再(再)吃(吃)几(几)天(天).
B: 谢谢(谢谢).
靈劬丸(Choi Jang): 동질
靈劬丸(Choi Jang): 동질
靈劬丸(Choi Jang): 동질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大藏經(대장경) 큰 대, 저장할 장, 냉 경
대장경(大藏經)은 불교(佛敎) 경전에 대한 존칭이며, 불교에 관련된 모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藏)은 산스크리트어의 피타카(pitaka : 광주리)에서 연유하여 문서나 가르침을 '담는다'는 의미이다. 보통 삼장(三藏)을 말하는데, 석가모니의 설교를 기록한 경장(經藏)과, 모든 계율을 모은 율장(律藏), 그리고 불제자들의 논설을 모은 논장(論藏)이 그것이다.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대장경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고, 불법(佛法)의 보호로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대하였다. 고려에서는 11세기 초 요나라가 고려를 침입하자 현종은 대장경 새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76년 후 1087년에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으로 완성되었다. 또 6년 뒤에는 보안작업으로 속장경(續藏經)을 만들어 부인사에 보관하던 중,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에 불타버렸다. 최초 무신정권은 다시 1236년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여 16년 뒤에 8만장의 대장경을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하다가, 조선 태조 때 해인사 장경각(藏經閣)으로 옮겼다. 불교에서 '8만'이란 '많은 수'라는 의미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 글자를 쓰거나 새길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하였으며, 틀린 글자는 단 한 글자뿐이라고 한다.

<한예민(韓藝嫻)>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